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의 사상과 메시지에서 함께 간다.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은 구원하는(salvific) 죽음이었다.

* 두 가지 오해

1. 오직 십자가: 예수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가르쳤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2. 대속 제물로서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이해하는 것은 11세기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의 논증에서 처음으로 등장.

예수의 십자가를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는 것은 틀린 역사이며, 해로운 인간론이며, 불량한 신학이다. 바울 당시에는 없었던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거꾸로 바울에게 투사한 것이기 때문.

*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이해

두 가지 전제 요점: 첫째-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계시들이었다.

둘째-속죄가 곧 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속죄는 **화해의 수단**을 가리킨다.

다시 “하나됨”(at-one-ment)에 관한 것 177쪽

1. 제국의 성격을 드러낸 십자가

바울의 세계에서 십자가는 언제나 로마제국의 십자가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가 반제국적인 인물이었으며, 바울의 복음이 반제국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로마의 제국신학과 대결/맞받아치는 것.

십자가는 로마제국이 예수에게 “no”라고 선고한 것,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yes”라고 뒤집어 선고한 것.

2. 참여하는 속죄의 길에 대한 계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정체성과 생활방식으로 부활하는 변화의 길을 뜻한다. 참여를 통한 하나됨(at-one-ment through participation)이 요구된다. 참여하는 속죄는 철저한 내면적 변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은유적 언어.

정체성의 이식 = 성령의 이식(Spirit transplant)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적인 정체성

187쪽

3. 하나님의 성격에 대한 계시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로 보았다.

하나님의 “성격”과 “열정”을 계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격=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정=세상인 것을 계시.

중요한 오해 -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으며, “제물”로 죽었다는 바울의 언어=예수의 죽음이 대속제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대신(substitution)을 뜻하지는 않는다.

In that person’s place이 아니고 for that person’s sake이다.

희생제물: 라틴어 어원 sacrum facere는 “**신성한 것으로 만든다**”

제물은 하나님의 수단: 감사제물, 간청제물, 화해제물

예수의 죽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간주하는 것은, 바울의 세계를 포함해서 고대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의미를 희생제물의 개념 속에 끌어들이는 일.

대속 신학은 급진적인 바울의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성격과 열정이 예수 안에서 드러난다는 말.

*부활: 바울은 부활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가?

부활한 그리스도는 체험의 실재(as an experiential reality)다.

고전 15장: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계속된 사건

부활 묘사는 시각적인 언어로

부활한 몸: 영적인 몸. (씨앗과 싹)

달리 말하면 부활한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

예수의 부활은 명령(as an imperative)이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시대의 종말(the end of this age): 변화된 세상에 관한 것

God’s great cleanup of the world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대청소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참여하는 속죄/참여하는 종말론: 급진적 바울의 사상과 메시지